

<2013. 2. 3 주일 오후 특강>

##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

김문수

### 1.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을 바르게 알아야 할 필요성

- 가.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루어진 일과 이루어질 일에 대해 이해
- 나. 구원의 확실성, 안전성을 재확인
- 다. 영적 성장에 대한 동기 부여

### 2. 사람의 구원

가. 사람의 구성 요소: 영, 혼, 몸 (살전5:23)

- 1) **영의 구원**: 영이 거듭나며, 죽어서 영, 혼, 몸이 분리되더라도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됨.

고전5:5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 2) **혼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로부터 구원받음  
벧전1:9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 3) **몸의 구원**: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은 몸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몸이 변화되는 것을 말함(고전15:51,52)

롬8:23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 4)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영, 혼, 몸을 모두 구원하는 전인적 구원이다.

나. 혼의 구원의 중요성

- 1) 성경은 사람을 혼이라고 표현한다.

창46:27 야곱의 가족 일혼 혼이 이집트로 내려감

행2:41 삼천 혼이 믿고 침례를 받아 교회에 더해짐

- 2) 혼은 사람을 대표한다.

창1:27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심.

하나님의 삼위일체: 성령님-하나님-예수님. 사람: 영-혼-몸

- 3) 죄를 짓는 것도 혼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믿음을 결정하는 것도 혼의 역할이다.

겔18:4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시57:1 오 하나님이여, 내 혼이 주를 신뢰하오니...

- 4) 낙원(셋째 하늘)이나 지옥에 가는 것은 영이나 몸이 아니라, 혼이다.

시16:10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 두지 아니하시고...

- 5) 혼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영과 몸이 가는 곳이 결정된다.

낙원에 있던 혼들은 몸을 입고 부활하여 천년왕국을 거쳐 영원한 하늘(Heaven)로

지옥에 있던 혼들은 몸을 입고 부활하여 영원한 불 호수로(계20:13,14)

### 3. 구원의 세 시제

가. **칭의**(justification): 과거

- 1)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심(롬5:1). 의로운 상태로 변하는 것이 아님
- 2)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바로 이루어짐
- 3)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free from the penalty of sin)

나. **성화**(sanctification): 현재

- 1) 구원받은 후 세상에서 분리되고 주님께로 구별됨(히10:10). 주님을 닮아감(롬8:29-30)
- 2) 예수님을 믿은 후 일평생 계속 변화되어 감
- 3)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free from the power of sin)

다. **영화**(glorification): 영화롭게 됨

- 1)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변화됨(요일3:2-3)
- 2)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짐
- 3)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free from the presence of sin)

라. 이집트 탈출(칭의) - 광야생활(성화) - 가나안(영화) 비유

구원의 각 단계와 유사한 점은 있으나, 구원의 안전성 측면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비유  
가나안은 천국이 아님. 거기에는 우상숭배와 가증한 것들로 가득했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전쟁을 치러야 했음. 광야에서 죄를 지어 죽고 가나안에 못 들어간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인가?(모세는?) 성화의 과정을 철저히 거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주장이 나옴.

4. 구원받은 것을 믿는가, 구원받을 것을 믿는가? (단번에 이루어지는가, 이루는 과정인가?)

가. 칭의, 성화, 영화의 시간적 순서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아직 우리의 구원은 미완성 상태이며, 도중에 구원을 잃어버릴 지도 모른다고 생각함

나. 만약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성화의 과정을 충실하게 이루지 못하면, 영화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에서 탈락하는 수도 있는가? → 아니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밟지만, 죽는 순간에도 완전하게 되지는 않음.

그래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 은혜로 이미 받았으므로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사람마다 차이 있음) 반드시 영광에 이르게 된다.

(예화: KTX 열차를 맞게 탔다면, 열차 안에서 잠을 자거나 넘어져도 목적지에 도착한다)

롬8:29-30 의롭게 된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니라

히10:14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습니다니라

빌1:6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신다.

라. 따라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

5.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 변화

가. 죄들의 용서를 받음 - 엡1:7

나. 의롭게 됨 - 롬3:24

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 - 롬5:1

라. 하나님의 아들이 됨 - 요1:12

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됨 - 벧후1:3,4

바. 율법에서 해방됨 - 롬6:14,15

사. 영원한 생명을 얻음 - 요일5:11,12

6. 우리의 신분(position)과 상태(condition)

가. 우리의 신분: 구원을 받아 하늘의 처소에 앉아 있다(엡2:5,6)

우리의 상태: 이 세상에 살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기도 하고, 실패와 좌절도 경험함

나. 경찰은 강도를 체포하는 사람인데, 왜 어떤 때에는 강도에게 공격당하는가?

신분은 경찰이지만, 그의 체력과 무장 상태(순찰차, 권총, 수갑)가 빈약하면 당한다.

다. 우리는 구원받은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성화의 과정을 거치며 변화되어야 한다.

우리의 상태는 오르락내리락하지만, 우리의 신분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